

魏伯珪의 時調 『農歌』 攷

李 鍾 出

차 례	
一. 序 言	2. 形 式
二. 作 者 攷	3. 製作年代
三. 作 品 攷	四. 結 言
1. 內 容	

一. 序 言

여기 論하고자하는 作品 「農歌」는 이미 紹介한 바 있는 全南 長興郡 冠山面 傍村里 魏桂煥氏 所藏本인 假稱 「三足堂歌帖」에 收錄되어 傳하는 作品中の 하나로 農村의 生活 風景을 九首의 時調로써 읊은 連時調의 形態로 되어 있는데 그 內容과 形式이 다른 時調에 比하여 多少 特異할 뿐만 아니라, 特히 單型時調에서 長型時調로 옮겨가는 過程에서, 또는 時調에서 歌辭로 變型되어가는 樣相을 엿볼 수 있는 形態的 特性을 나타내고 있어 자못 興味있는 資料가 될듯하여 여기 作者 및 作品의 概括的인 考察이나마 試圖코자 하는 바이다.

그리고 假稱「三足堂歌帖」에는 本「農歌」의 每首끝마다 「右一章」「右二章」등의 表示만 되어 있는데, 亦是 魏桂煥氏 所藏本 (河聲來氏提供)인 「社中約講會名帖」이라는 古本에 收錄된 「農歌」에는 每首끝마다 「右朝出」「右適田」 따위의 各首 名稱 (題目)이 表示되어 있으며 語句 表記에 若干의 差異點이 보이는데, 本文 紹介에서 參考로 相違한 部分만 「社中約講會名帖」의 것을 ()속에 表示하겠다.

二. 作 者 攷

먼저 이 作品의 作者부터 考察하여 보면, 作者인 魏伯珪의 字는 子華, 號는 存齋 또는 桂菴이라 하며, 長興魏氏인 高麗太保 繼廷의 後孫이다.

그의 高祖의 諱는 延烈 (縣監) 曾祖의 諱는 東冕이며, 歌辭 金塘別曲의 作者로 紹介된 (국어국문학 34.35 合併號) 三足堂 魏世寶 (註·其實 金塘別曲의 作者는 魏世寶의 三從兄 魏世禔으로 推定됨)가 그의 祖父이고, 進士 文德 (號는 春谷)의 長子이다.

다음에 그의 後孫이 編撰한 存齋集年譜및 行狀에 依하여 그의 生涯를 잠시 살펴 보면, 그는 英祖3年 (西紀1727年)에 全南 長興郡 桂春洞에서 出生하여 3·4歲에 이미 「便知讀書」하고 九歲時엔 長者를 따라 天冠山에 올라가선 「發跡天冠寺

梯空上春昊 俯視人間世 塵埃三萬里」라는 詩를 읊음만큼 일찍부터 志氣가 非凡하였고, 十歲以後에 天文・地理・律歷・卜筮・道佛・兵韜・算數之書에 이르기까지 無不傳觀하였으며, 正祖22年(西紀1798年)에 享年: 72歲로卒하기까지「政絃新譜」「寶藏誌」等 重要 文集만도 90餘卷에 達하는(그중 24卷은 內閣에 들어감) 著述을 남긴 分으로 英正祖 實學界에 있어서 湖南地方 最後의 學統을 이어받은 學者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는 주로 屏溪 尹文簡公에서 學問의 指導와 感化를 받았으며, 始泰 故鄉에서 學問에만 專念하다가 晩年(그의 70歲時)인 正祖20年 2月에 國王의 特命으로 玉果縣監에 赴任하여 이듬해 閏6月까지 約1年半동안 在職한 것이 그의 官職生活의 全部이지만 다만 그후 곧 掌苑署別提에 다시 除授 되었으나 病으로 因하여 赴任하지 못한 채 몇달동안(同年 10月까지) 形式上의 官職에 더 머문 셈이라고 볼 수는 있다.

다음에 魏伯珪의 國文學系統 作品으로는 여기 紹介하는 連時調型인「農歌」以外에 歌辭 作品인「自悔歌」와 그리고「勤學歌」의 作者로도 傳해지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勤學歌」는 從前에 이미 發表된 몇간의 勤學歌와는 內容이 다른 作品이다.

더구나 國文學史上 實學系統의 漢學者로서는 時調도 그렇거니와 特히 歌辭文學分野에 있어서는 그 作家를 찾아보기 어려운 實情임에 비추어 볼 때, 魏伯珪는 時調 및 歌辭의 國文學系統 作品을 아울러 남기고 있음은 文學史上 特記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三. 作品 攷

1. 內 容

먼저 農歌의 內容을 잠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本文은 註釋의 便宜上 뒤로 돌림)

第一首, 西山에 돌을벌 서는 이룬 이침에 비온 뒤 풀이 우거진 밭들을 치레로 메리라는 起句, 序調的 內容, (右朝出・社中約講會名帖・以下同)

第二首, 도롱이에 호미를 걸고, 조를 물고 긴 물가에 풀을 뜯어 먹으며 일터로 나가는 光景, (右適用)

第三首, 이 풀 저 풀 사레마다 우거진 바랭이 쇠물들을 돌리내는(쳐내는) 光景, (右耘草)

第四首, 벼약밭에 밤을 둘러머 일을 하다가 서원한 바람에 옷깃을 열고 긴 파랗 불며 잠시 쉬는 光景, (右午憩)

第五首, 어느덧 점심 때가 되어 보리밥 콩알채를 서로 나누어 먹은 뒤에 잠시 낮잠 한숨을 즐기는 光景, (右點心)

第六首, 해가 진 뒤 저녁물에 손발을 씻고 樵童의 피터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光景, (右夕歸)

第七首, 五六月이 가고 음력 七月이 半나마 기운 조가을 들녘에서 棉花는 다래 다래 피고, 이룬 벼(을벼)는 벌써 누엿누엿 고개 숙인 光景을 보고

흐뭇해지는 心境. (右初秋)

第八首, 집으로 돌아와 밤상 앞에서 잔을 들고 흥겨워 하는 모습. (右嘗新)

第九首, 저녁 食事 후에 老少가 모여 醉興 同樂하는 光景. (右飲社)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歌」의 內容은 農村의 이른 아침부터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하루의 疲勞를 酒興으로 풀기까지의 生活樣相을 連時調의 形式을 빌어 實感있게 노래한 것으로 國文學史上 보기 드문 內容의 作品이다.

또한 그 內容이 眞率 曲盡하여 農夫들의 生活感情이 아주 切實하게 드러나 있으며, 더구나 순수한 우리말의 虛飾 없는 表現과 湖南地方 사투리의 거침없는 驅使가 또한 鄉土美를 한결 더하고 있다.

그리고 이 「農歌」에 스며있는 그의 意趣는 漢詩로 된 農歌라고 할 수 있는 「田畔溝口古因爲月課韻」이라는 七言律詩 (社中約講會名帖) 에도 잘 나타나 있으니 參考로 附記하면 다음과 같다.

幾人爲屨幾人書	圍坐桑陰罷午鋤	堪笑野人多事事	夕陽歸路又觀魚
傭上婦人意氣多	澹烟斜日半肩簍	悠然獨嘯臨風久	兒道山前有客過

2. 形 式

本作品은 「農歌」라는 題目 그대로 前項에서 본 바와같이 農村의 하루일을 九首의 時調로써 노래한 連時調型의 作品으로서, 從來의 平時調型에 別로 拘碍됨이 없이 比較的 자유로운 形式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本作品의 字數律을 每首別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① 3.5 3.5 / 2.4 3.4 / 3.7 4.4 | ② 4.4 3.5 / 3.4 3.4 / 3.4 4.3 |
| ③ 4.4 3.4 / 3.3 4.4 / 3.4 4.4 | ④ 2.6 2.5 / 3.4 3.4 / 3.6 4.4 |
| ⑤ 3.4 3.4 / 2.4 3.4 / 3.6 4.4 | ⑥ 4.4 4.4 / 3.4 4.4 / 3.5 4.4 |
| ⑦ 3.7 4.7 / 4.4 3.4 / 3.8 4.4 | ⑧ 3.5 4.5 / 2.4 3.4 / 3.9 4.3 |
| ⑨ 4.4 3.4 / 4.4 4.4 / 3.8 4.4 | |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어느 한 首도 <3.4 3(4).4 / 3.4 3(4).4 / 3.5 4.3> 이라는 이른바 平時調의 基本型에 들어맞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特別 第4 第7 第8 第9首 등의 경우는 그 字數의 破格이 상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또 이찌면 生硬하리만큼 平易한 農村의 生活用語를 그대로 作品上에 驅使하고 있는 데서 오는 結果라고 하겠다.

그리고 위에서 보인 字數律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初章 中章은 且置하고 時調形式의 가장 生命이라고 할 수 있는 終章에서조차 第一分句 三音節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으나, 時調 特有의 終結 表示인, 다시 말하면 이른바 扶桑旭日같이 3.5 3.6 또는 3.7調로 上昇高調 되었다가 夕陽落照와 같이 4.3調로 下降沈澁하는 終結 表示라고 할 수 있는 終章 第2句 곧 終章 第3.4分句의 <4.3> 形式이 지켜진 것은 단 二首 뿐이고, 大多數인 7首는 모두 <4.4>調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은 時調의 特質을 벗어나 多分히 44調 後期 歌辭體의 字數律과 融合된 點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農歌 自体가 連時調(連形時調)라는 데서 빚어진 結果라기보다는 作者 自身이 隱然中 44調 歌辭體에 보다 勝했던 點이 아니었던가 짐작되며, 또한 이 點이 時調 그 自体의 形式美로서는 약간의 損傷이 될지 모르나, 그 反面 表現의 技巧을 넘어선 素朴한 生活語의 驅使가 한결 더 親密한 鄉土感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問題가 提起될 수 있는 것은 時調와 歌辭文學의 發生과의 聯關性 問題이다.

從前의 歌辭 發生에 對한 學說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李朝初期 景幾體歌의 崩壞에서 歌辭形式이 派生되었다고 보는 見解와 또 하나는 時調의 初章 中章이 制限없이 되풀이 되어, 다시 말하면 終章의 拘束에서 벗어나 初·中章의 34調 또는 44調가 길게 敷衍되어 長型의 歌辭 形態를 이루게 되었다고 보는 見解이다. 그리고 後者의 경우는 初期 兩班歌辭의 大部分의 終句 形態가 時調 終章의 形態와 類似한 이른바 落句 形式을 取하고 있다는 點에 根據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 論議되는 「農歌」의 例로 보아서는, 歌辭 發生 乃至는 形成過程에 있어서 또 하나의 경우(形成 要因)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即, 時調에서 歌辭가 派生되었다고 보는 것은, 달리 말하면 歷史的 變遷에 따라 복잡한 生活感情 乃至는 時代的 要求에 依하여 短型詩歌에서 長型詩歌으로 變形되었다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와같이 變形되는 過程에 있어서 前記한 바와같이 初·中章이 길게 敷衍되어 長型이 이루어지는 外에, 連時調(連形時調)와 같이 平時調型을 여러 首 連疊하여 한 主題의 詩歌를 形成하는 것도 短型時調의 長型化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例하면 尹孤山의 五友歌나 朴蘆溪의 早紅柿歌 등도 이와같은 경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五友歌나 早紅柿歌도 물론 그렇거니와 古時調中 大部分의 連時調가 連形시키는 하되 平時調의 基本型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한 首 한 首를 따로 떼어 놓아도 낱낱의 平時調로 獨立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農歌」에서 보는 바와같이 여러 首의 平時調型을 連疊하여 連形時調를 이루되 每首마다 지니는 時調 特有的 終章 意識이 희박하여 終章의 形態의 特徵이 허물어질 때, 다시 말하면 初·中·終章의 區別이 不分明하게 連疊되어 나아가면 歌辭와 같은 長型의 詩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 말하는 「農歌」에서 歌辭 發生을 云謂한다는 것은 時代的 距離로 보아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앞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農歌」自体만 가지고 본다면 그것이 歌辭體의 字數律과 融合된 듯한 現象은 農歌 自体가 連時調이기 때문에 빚어진 結果라기보다는 作者 自身이 隱然中 四四調 歌辭體에 보다 親熟했던 點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더 勝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初期의 實例가 남아 전하는 것이 없기는 하나 「農歌」의 形態와 같은 例가 歌辭 形成의 한 要因이 될 수는 있으리

라는 點이다. 그리고 또 歌辭가 時調에서 變形 乃至는 派生되었다고 보는 限에 있어서는 側面的으로나마 이러한 要因이 多少 作用하였으리라는 것도 否認할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다.

3. 製作年代

本作品의 製作年代는 收錄된 歌帖이나 作者의 年譜(存齋集年譜) 그리고 前記한 「社中約講會名帖」에도 記錄이 보이지 않는데 다만 作品의 내용으로 짐작컨대 作者의 晩年에 製作된 것이 아닌가 推測될 따름이다.

그리고 本時調作品의 每首 終章 結尾에서 보이는 四四調 歌辭體의 字數律과의 聯關性 등을 考慮해 보더라도 亦是 作者의 다른 作品인 歌辭 「自悔歌」가 製作된 正祖11年(西紀1787年 61歲時)을 前後한 作者 晩年에 製作된 것으로 推測된다.

그리고 本作品의 製作時期는 作品中 <오늘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에서 보는 바와같이 陰曆 7月 中旬 곧 陽曆으로는 8月 下旬 乃至는 9月 初旬으로 棉花가 피어나고 이른 벼이삭이 익어가는 초가을임을 알 수 있다.

4. 結 言

國文學史上 約 3千餘首의 時調가 現傳하고 그중에는 斷片的으로 農村의 田園的인 風景이나, 페로는 若干의 生活感情을 노래한 作品이 있기는 하나 本時調(農歌)처럼 九首에 達하는 連時調의 形式을 밟아 農村의 仔細한 生活感情을 具體的으로 노래한 作品은 아직 없다.

더구나 本時調는 英正朝의 平民文學時代를 背景으로한 實學者의 作品으로 比較的 자유로운 形態律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한 가사 형성의 한 要因을 찾아볼 수도 있는 좋은 資料가 될 듯도 하다. 그리고 作品의 價値面에 있어서도 순수한 우리말로 된 農村의 生活用語를 거침없이 使用하여 素朴한 農夫들의 生活感情을 보다 如實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조금도 技巧的인 虛飾이 없는 구수한 地方語의 驅使가 할결 더 親密感을 자아내고 있다.

農 歌 <全 文>(但 까다로운 古綴字는 不得已 現代綴字로 고침)

- 서산의 도들벗① 서고 구움(굴움)은② 느제로③ 내다. (넉다)
비룻 무근 풀이 뉘 밧시 짓터든고④
두어라 츠레 지운 날(일)이니 리논나(대)로 리오리라. (右朝出)
- 도롱이에 흙의⑤ 걸고 빨 꼽은 검은 쇼 물고
고농풀 뚫머기며⑥ 깃물갓⑦ 느려갈 게
어디서 품진⑧ 벗님 흘쳐 가자 흥논고 (右適田)
- 들너내자⑨ 들너내자 긴 츠쿨(길춘쿨)⑩ 들너내자
바라기⑪ 역고(역괴)를⑫ 골풀마다 들너내자
쉬깃튼⑬ 긴 스래논⑭ 마조 잡아 들러내자 (右耘草)
- 땀은 든논데로⑮ 듯고⑯ 벗슨 쥘데로 쥘다.

청풍의 옷깃 열고 긴 파란 허리 붙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비(손님)① 아논 두시 머무는고 (右午憩)

○ 행기에① 보리무오(보리미오)② 사람의 콩넵채라

내 밥 만할새요 배 만찬 적글세라③

먹은 췌 한습 잠 경이야④ 배오 내오 다할조나(달을조나) (右點心)

○ 돌리가자 도라가자(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기탄(지기다) 도라가자(돌아가자)

제변의⑤ 손발 씻고 흙의 매고 돌아올제

어디서 우배초적(牛背草積)⑥이 한세 가자 배아논고⑦ (右夕歸)

○ 민화(綿花)는⑧ 세두레⑨ 배두레요 일원(일은)⑩ 버논 패논⑪ 모가(모개)⑫

곱논가⑬(곱논모개)

오늘월이 언제 가고(어제런듯) 절월이 반이로다(반이로다)

아마도 하늘님 너희(너희) 삼길 제⑭ 난 위하야(어) 삼기샷다. (右初秋)

○ 아해는 낙기질(낙기질) 가고 집사람은 저리쳐⑮ 친다.

새 밥 녀을 따(때)에⑯ 새 술을 걸리세라(걸릴세라)

아마도 밥 들어고⑰ 잔 자불(자불) 따여(때) 호흥계위(豪興계위)⑱ 호노라 (右祥新)

○ 취하느니⑲ 들그니요 웃느니(웃느니) 아희로다

흐른 술배⑳ 흐린 술을 고개 수겨 걸할 때여(때여)

뉘라시 흐리장고(흥장고)㉑ 긴 노래로 증례 춤을 머루는고 (右飲社)

1) 도들뻬=돌을뻬, 아침에 처음 돌아오는 뻬뻬.

20) 적글배라=적글세라.

2) 구울=구름

21) 경이야=景況이야.

3) 노래로=北風으로, 또는 西風으로. <노지로>

22) 제변의=溪邊에.

라고도 쓰이는 海岸地方 사투리. 들바람→北風 (南海岸地方, 들바람→西風 (西海岸地方))

23) 우배초적=牛背草積.

4) 깃터든고=깃털던고. (풀이) 무성하게 우거졌던고.

24) 미아논고=미추하논고.

25) 민화는=棉花는.

5) 흙의=호미.

26) 세두레=세 다레끼.

6) 뜻머기미=뜻머 먹이며.

27) 일원=이른, 올 된.

7) 깃문갓=긴 물가(溪邊)

28) 패논=피는, 피어나는.

8) 품질=품을 질, 품은 품아지.

29) 모가=(바외) 모가지가.

9) 들너미자=(고랑을) 치미자.

30) 곱논가=곱논가.

10) <걸찬 골>이 울을듯, 곧 雜草 가득찬 고랑

31) 삼길제=삼기날 때, 여기서의 삼겨나게 할 때의 뜻.

11) 바라기=바랭이의 사투리.

32) 저리쳐=가무를 곱게 쳐 내거나 액체를 받아 내는 때 쓰는 제구일 제의 一種.

12) 역교를=역국대를(草名, 사투리)

33) 따여=때에, 終章의 <따여>도 同.

13) 쉬깃튼=쇠불이 짙은, 쇠불이 우거진.

34) 밥 들어고=밥 상을 들어고, 곧 밥상을 받고.

14) 스래논=사래는.

35) 호흥계위=큰 기침 하며 흥에 겨운 모양.(豪興)

15) 든논대로=흐르논 대로.

36) 취하느니=취하는 이, 곧 취하는 사람.

16) 듯고=흐르고.

37) 술배=巡杯, 돌아가는 술잔.

17) 손님비=손님비.

38) 흐리장고=흐르는 장고(長鼓). <장고를 흐른다>는 湖南地方 사투리에서 된 말.

18) 행기=그릇의 一種.

19) 보리무오=보리밭이오.